



KOFA ... 세계 초 일류를 향한 도전
2025년 상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31**
2025/08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美, 인도네시아 관세 32%→19% 인하... 3번째 무역합의

“인니, 美에너지·농산물·제트기 구매 약속” “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7.16.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관세협상에서 합의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상호관세를 13%포인트 인하해주는 대신, 미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인도네시아와 모두를 위한 훌륭한 거래를 방금 체결했다”며 “그들의 존중받은 대통령과 직접 이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을 밝혔는데, “협정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는 150억달러 상당의 미국 에너지 제품, 45억달러의 농산물과 대부분이 777인 50대의 보잉 제트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농장주와 농부, 어부들은 2억8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접근

권을 얻게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9% 관세를 납부할 것이며, 인도네시아로 가는 미국 수출품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에서 환적되는 경우엔 해당 관세율이 인도네시아가 지불하는 관세율에 추가된다”며 “무역적자 균형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헌신과 우정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 32%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7일 보낸 서한에서도 32% 관세율을 통보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가 상당수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하자 관세율을 19% 수준으로 조정해준 것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제품이 미국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알려져 미 수입 전반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 4월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무역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영국과 10%, 베트남과 20% 관세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를 연장한 이후에는 첫번째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에 서한을 보내, 각국 상호관세 8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한 접근성을 갖게 됐다. 이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것”이라고 자랑했다.

또한 “그들은 19% 관세를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30% 상호관세를 책정한 유럽연합(EU)과 협상에 대한 질문에는 “대화 중이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KOFA 세계 초 일류를 향한 도전 ... 2025년 상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지난 11일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회장:이종윤)는 2025년 상반기 회장단회의를 땅그랑소재 임페리얼CC에서 열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는 약 40여 KOFA회장단이 참석해 최근 대미 관세문제로 인한 우리 신발산업의 미래와 대처방안등을 논의했다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 회장 이종윤

KOFA 이종윤 회장은 관세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딛고 슬기롭게 극복 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그간 우리 KOFA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끈기와 지혜로 잘 이겨왔다고 했다.

한편 KOFA는 회원사 권익을 위해 각 경제단체 행사에 참석해 회원사를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코파의 힘 월간 소식지는 10년이 훌쩍넘은 126호를 발

행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2025년 범한국신발인의 날 행사에 관한 논의를 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회원사와 함께 하고 회원사를 하나로 만들어 내는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는 2025년을 넘어 세계 초 일류를 향한 도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편집국]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특 징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어 설득력이 높습니다.

2,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3002-9090 (mr. kang) 0858-9060-0962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인도네시아, 미국 무역 협정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자카르타 판중 브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 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미국 상품의 99%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기업이 직면한 모든 비관세 장벽을 폐기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2%에서 19%로 낮출 것이라고 양국이 22일 밝혔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 거래를 “자동차 제조업체, 기술 회사, 노동자, 농부, 목장주 및 제조업체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다.

협정의 틀에 대한 세부 사항

은 양국의 공동 성명과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 시트에서 공개됐다. 양국 협상가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실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성명에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틀에 합의했으며, 이는 양국 수출업체들이 서로의 시장에 전례 없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협상은 관세 인상이 예정된 8월 1일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체결한 몇 안 되는 협상 중 하나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앞서 발표된 필리핀의 관세 19%와 동일하다. 베트남의 관세율은 20%로 책정됐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데이터 유통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것을 지지하기

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미국 농산물 수출에 문제를 일으키고 미국 농산물 무역 적자 증가에 기여한 미국 수출품에 대한 최근 시행된 선적 전 검사 및 검증을 제외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서 인구 2억 8천만 명의 성장하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차량에 대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중요 광물을 포함한 산업 상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성명은 밝혔다. 또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국내부품사용요건’도 제외된다.

공동 성명은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19%로 인하할 것이며,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구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상품을 식별하여 상호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제 공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이 협정의 혜택이 제3국이 아닌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도록 원산지 규정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인도네시아가 미국 제조품이나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 및 라이선스 요건을 제거하는 등 미국 상품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철강 과잉 생산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 가입하고 철강 부문의 글로벌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 중 최초로 OECD 가입 신청

OECD에 가입각서 제출 무역·투자 확대 기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리. (사진=픽사베이)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본격 행보로 해석된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2025년 OECD 각료이사회 회의에 즈음하여 마티아스 코르만(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에게 인도네시아의 가입각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제출은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 절차의 기술적·실질적 검토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입각서는 인도네시아의 법률, 정책, 관행이 OECD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문서다.

코르만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입각서 제출은 국제표준을 준수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OECD 가입은 인도네시아의 2045년 선진국 진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르타르토 장관은 OECD 가입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OECD 가입은 외국인 투자를 0.37% 증가시키고 국내총생산(GDP)을 0.94% 높일 수 있다”며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새 기회가 열릴 것이며 이는 OECD와 인도 태평양 지역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부터 OECD의 주요 파트너국으로 활동해왔다. 2014년에는 OECD의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의 첫 공동 의장국을 맡은 바 있다. 공식적인 가입 논의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가입각서 제출로 그 절차가 본격화됐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OECD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과도 가입 회담을 시작한 상태다.

OECD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을 협력하고 조율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38개의 회원국이 있고 대부분 고소득 시장경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OECD는 글로벌 경제 기준과 규제를 설정하는 영향력 있는 포럼으로 평가된다.

THE GURU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PT ALJI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LS-AG Cable Indonesia
www.lscns.com
www.lz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LJIUM GREEN NUSA

인도네시아, 미국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 발표 ... 정부,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인도네시아,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국내 고용 안정 기대... 관세 인하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미 관세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 2025.7.22.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1일(월)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국내 주요 기업 및 관련 산업 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상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합의된 수입 관세 인하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기회를 심층적으로 공유하고, 양국 간의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증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긴밀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인도네시아산 제품 관세 대폭 인하... 아세안 최저 수준 확보** 이번 협상의 핵심 내용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를 기존 32%에서 19%로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아세안(ASEAN)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 7월 미국의 공식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에 합의된 19%의 관세율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경쟁국은 물론 방글라데시, 인도 등 주요 섬유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관세 품목 확대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지속**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합의를 발판 삼아 미국에 대한 무관세(0%) 적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일랑가 장관은 “기존 아세안, 중국, EU 등과 체결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0% 관세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더욱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최혜국(MFN) 관세 구조 하에서 이미 1,347개 품목(11.7%)이 무관세로 적용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향후 더 많은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에서는 양국 간 무역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양국 간의 무역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우려 불식... 경제적 영향 제한적** 한편,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일부 미국산 제품 수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아일랑가 장관은 “밀, 대두, 에너지 등은 기존에도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해 타국에서 수입해오던 품목”이라며 “이는 단순히 공급처가 미국으로 변경되는 것일 뿐, 전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 안정 및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 기대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이 단순한 수출 증대를 넘어 인도네시아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특히 식량 안보 강화, 고용 안정, 노동 집약적 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약 100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100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인하된 관세율 8월 1일부터 공식 적용... 관계 부처 및 산업계 높은 관심** 인하된 19%의 신규 관세율은 양국 공동성명 발표 후 오는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가경제위원회, 중소기업부, 재무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과 국영기업 및 주요 산업 협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미국 관세에 대해 여전히 세부 사항 협상 중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 후에도 미국과 최근 타결한 무역 협상의 세부 사항을 여전히 협상 중이며 팜유와 니켈 수출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지난 18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주에 무역 협상을 타결해 미국이 제안한 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국가와의 8월 1일 협상 시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타결한 몇 안 되는 합의 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고위 관리인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여전히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며, 기존 부문별 관세에 더해 19%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코코아, 고무, 팜유, 커피, 니켈 수출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국 기술 제품도 인도네시아의 ‘국내산부품사용요건’ 규정에서 면제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2024년 전체 수입량의 85%를 차지하는 대미 최대 공급국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제트기를 구매할 예정이며, 국영 에너지 기업인 브르타미

나도 사업 검토를 거쳐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미국 상품은 알코올 음료와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부 미국 상품은 수입 쿼터 규정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허가, 지적 재산권 보호, 인도네시아가 핵 부품이 포함된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료 납부**
-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패션 및 스포츠웨어 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생산 기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신발, 의류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가 현실화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한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냈다.

단순히 기업의 손익 문제를 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입 현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글로벌 공급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아시아에 기댄 생산 구조, 관세 직격탄을 맞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공급망 구조를 살펴보면 이번 관세 정책의 파급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비용 효율성을 위해 생산 시설 대부분을 아시아 국가에 두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 나이키 신발의 95%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며, 의류 역시 약 60%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에서 제조되었다.

아디다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비요른 쿨덴 아디다스 CEO는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높은 관세는 결국 미국 시장에 판매될 모든 제품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 생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공급망 구조는 예기치 못한 관세 장벽 앞에서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다.

1조 원대 비용 증가와 실적 악화, 현실이 된 위기

관세 부과는 기업들에게 즉각적이고 막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키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약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지난 1년간 시장 가치가 3분의 1이나 하락하고 3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한 나이키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튜 프렌드 나이키 CFO는 “이번 관세는 새롭고 의미 있는 비용 역풍”이라며 위기감을 표했다.

아디다스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

세 문제로 인해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못했다. 이미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줄이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꾀했지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까지 관세가 부과되면서 여전히 높은 관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생존의 위협” 업계 공동 대응과 전략적 딜레마

이러한 위협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미국 신발유통소매협회(FDRA)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포함한 76개 신발 회사의 서명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면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신발 기업과 가정은 막대한 비용 증가로 인해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호소하며, 기존의 높은 관세에 새로운 관세가 더해져 일부 기업은 150%에서 최대 22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로 이어지기보다는 수많은 기업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뿐이라

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나이키는 올해 가을부터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애널리스트들은 아디다스가 가격 인상에 있어 나이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나이키나 호카(Hoka)의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가격대에 익숙한 반면, 아디다스의 주력 제품인 ‘슈퍼스타’ 나 ‘가젤’ 라인은 가격에 더 민감한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관세 압박 속에서 아디다스가 경쟁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저비용 생산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모든 주체에게 닥친 현실이다. 관세 장벽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지금,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는 등 복잡한 전략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트래드링스

이재명 정부, 전 재외공관장 일괄 사표 제출 지시... 인도네시아 대사 외교공백 해소 시급

관행적 재신임 절차 착수... 4강 대사 등 주요 공관장 인선 본격화 전망 1년 넘게 공석인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외교 공백 해소 과제도 산적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외교부가 전 세계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신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새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맞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고, 주요국 대사 인선을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5일 각국 재외공관에 공식

전문을 보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공관장직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이에 필요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직업 외교관 출신 공관장과 정치인·학자 출신인 특임공관장을 모두 포함하는 조치다.

이러한 재외공관장 일괄 사표 제출 및 재신임 절차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관행적 조치

다.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주재국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외교 일선을 재구성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실제적인 인사 교체의 폭과 방향을 가늠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인정받아 대통령이 임명

하는 자리로, 통상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재신임 절차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된 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지휘 아래 각 공관장의 업무 성과, 전문성, 새 정부와의 정책적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직서 수리 또는 반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교가



▲외교부 건물에서는 이번 재신임 절차와 맞물려 주요국 주재 대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선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외교 공백을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인포스트]



PT. YOU YEOUNG EMBROIDERY

최고수준의 품질과 뛰어난 광택!

100% 폴리에스터 자수사로 원사 구매부터 연사, 염색, 와인딩, 품질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명 EMB인도네시아 공장에서는 현재 약 1,500여 가지 색상 약 25만권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수십 년 동안 거래 경력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도

신발, 가방, 모자, 텐트, 장갑, 의류, 침대, 소파, 시트, 특수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자수사 50D / 2합 (5,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재생사. Recycled) 75D / 2합 (5,000M)	100%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밀실 75D / 2합 (144M)
75D / 2합 (5,000M)	120D / 2합 (5,000M)	스판 밀실
120D / 2합 (5,000M)	150D / 2합 (3,000M)	60S / 2합 (5,000M~50,000M)
150D / 2합 (3,000M)		주문생산 : 인견사 120D / 2합

PT. YOU YEOUNG EMBROIDERY
 Kawasan Industrial Millenium Jalan Millenium 12 Blok F2 No. 7 Kel. Peusar Kec. Panongan, Kab. Tangerang – Banten 15710
 Tel. +62 21-599-2386 Mobile. +62 822-4980-4125 Email. ufoemb@youyeoung.com

양복 만들던 ‘파크랜드’ 요즘 잘 나가네...8500억 ‘잭팟’

‘K-ODM’ 제2 전성시대...의류 넘어 신발·가방까지 접수

남성 정장 브랜드로 잘 알려진 파크랜드가 신발 제조업 강자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을 생산한 지 벌써 20년째 접어들면서다.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에서 2006년 아디다스 신발을 월 20만 켤레씩 생산하던 파크랜드는 현재 인도네시아에 6개 신발 사업부를 두고 있다. 의류 공장까지 가동한다. 연매출은 8513억 원대로 증가했다. 의류 중심이던 K-ODM(제조업자개발생산)이 신발, 가방 등 잡화로 ‘제2의 도약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침체’ 업종에서 ‘성장’ 산업으로
1973년 태화섬유로 시작해 1988년 신사복 브랜드를 선보인 파크랜드가 신발로 눈을 돌린 건 국내 남성복 시장 침체 때문이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남성정장 시장 규모는 6조8668억원으로 커졌지만 2015년 트렌드가 비즈니스 캐주얼로 바뀌며 4조2013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3조881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국내 패션시장 전체 규모가 30조원대에서 50조원 수준으로 커진 것을 감안하면 남성정장 분야는 크게 뒷걸음질한 것이다. 파크랜드는 신사복이 한창 잘 되던 1999년만 해도 국내 의류 생산 공장을 6개까지 확장했다. 하지만 패션 트렌드가 캐주얼 위주로 재편되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우선 자체 여성복 브랜드 ‘프렐린’, 캐릭터 브랜드 ‘제이하스’ 등을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파크랜드는 2005



‘남성 정장’ 파크랜드의 변신 / 이젠 글로벌 신발 제조업 강자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 印尼서 뉴발란스·아디다스 생산 신발 사업부·의류공장 ‘시너지’ / 年매출 8500억원대 규모로 성장 기존 강점 활용해 새 도약 / 정장 만들며 봉제 공정 고도화 시장 트렌드 보는 노하우 갖춰 / ODM 시스템에 빠르게 안착

년 인도네시아에 신발공장을 설립하고 글로벌 브랜드의 신발 맞춤 생산에 나섰다. 처음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파크랜드는 2005년 10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신발 제조 노하우가 있는 풍원제화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장을 세웠다. 이후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을 주문받으며 노하우를 쌓았다.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원가

를 절감했다. 2012년 인도네시아 2사업부에 자동화 설비를 인도네시아 최초로 설치했고 이듬해 1사업부에 아디다스 자동화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 당시 아디다스와 세운 공동연구센터는 신발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 재단기와 접착시스템 자동화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가능했던 일이다. 신발 사업 진출 전 2000억원

대이던 파크랜드 매출은 급증했다. 신사복으로 2004년 2088억원의 연매출을 낸 파크랜드는 신발 생산이 본격화한 2007년 3061억원을 거뒀다. 아디다스 공동연구센터를 세운 2012년엔 419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는 8513억원까지 증가했다.

B2C 노하우에 원단 강점도 ‘시너지’
파크랜드가 신발로 빠르게 전

향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제작 공정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남성 정장 재킷에는 어깨, 소매, 라펠, 칼라, 포켓, 앞판, 뒤판 등 부위별로 총 70~80개에 달하는 패턴이 들어간다. 이를 봉제하려면 200여 개 공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이다. 이에 비해 신발은 평균 20~30개 패턴을 100여 개 공정을 거쳐 생산한다. 같은 봉제산업이지만 패턴 수와 공정의 복잡도 측면에서 적응하기 수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를 먼저 시작한 뒤 기업 간 거래(B2B)로 확장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B2B 기업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B2C에 뛰어 들었다가 시장 트렌드, 소비자 반응에 둔감해 실패한 사례가 많다”며 “파크랜드는 전국에 매장을 운영하며 파악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신발 브랜드에 먼저 디자인을 제안하는 ODM 사업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오랜 기간 부산에서 의류 사업을 하며 원단 등 원부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 비결로 꼽힌다. 신발 제조 전문 중견기업 관계자는 “20년 전 10% 수준이던 파크랜드의 신발 매출 비중은 현재 신사복 비중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경]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윤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기술OK
 신뢰OK
 안전OK

“사양산업이란 말은 사양” ...영업이익률 5배 ‘K신발 스타기업’

지난 3일 부산 감천동에 있는 신발 소재 업체 아셈스 공장. 후끈한 열기 속에 실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오밀조밀한 그물 같은 소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 소재는 아셈스가 2022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물형 핫멜트 접착제’다. 열을 가해 붙이면 짧은 시간에 굳어 기존에 신발 내 접착용으로 쓰이던 테이프, 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세계 운동화의 대세로 통하는 ‘무(無)재봉 공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소재다. 유연성과 통기성이 좋은 이 제품은 아디다스가 나이키의 ‘에어 조던’을 뛰어넘기 위해 출시하는 ‘앤서니 에드워즈2’ 농구화에 들어간다. 제2의 마이클 조던으로 불리는 앤서니 에드워즈 선수를 모델로 한 신발로 예정 물량만 190만 켤레에 달한다. 장지상 아셈스 대표는 “신발뿐 아니라 옷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신소재”라며 “3년간 생산시설 확장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이키·아디다스 사로잡은 K소재
장 대표가 세운 아셈스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이형지(붙임용 종이) 없이 붙일 수 있는 필름형 핫멜트 접착제를 개발했다. 이형지가 없어 가볍고 외부 환경 변화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격렬한 움직임에도 접착력을 유지해야 하는 러닝화, 농구화 등에 제격이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글로벌 브랜드 회사가 앞다퉈 아셈스 접착제를 찾았다. 국내 신발 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아셈스는 2003년 이후 22년째 필름형 접착제 세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 이런 저력으로 이 회사는 지난해 1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아셈스 외에 K신발의 ‘히든 챔



첨단기술 무장한 ‘3인방’ / 글로벌 신발메이커 러브콜 아셈스, 그물형 접착제 최초 개발 / 운동화 대세 ‘無재봉’ 핵심 소재 아디다스 최고급 라인에 들어가 / 동진섬유, 고기능성 니트소재 나이키 신발원단 10% 차지 / 삼부정밀화학, 친환경 섬유 혁신

피언’으로 불리는 업체는 또 있다. 나이키 신발 원단의 10%를 담당하는 동진섬유가 대표적이다. 1968년 부산에 설립된 이후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식스, 언더아머 등에 고기능성 소재를 공급 중이다. 특히 나이키 레볼루션과 페가수스 프리미엄 같은 고급 신발의 윗부분(갑피) 소재를 납품해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찍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8%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체 평균 이익률(5.6%)의 다섯 배 수준이다.

경남 김해에 있는 삼부정밀화학은 친환경 소재로 ‘K신발 르네상스’를 이끌고 있다. 1993년 세계 최초로 석유 기반 세척제를 대체하는 수성 세척제를 개발했다. 금형에서 제품을 빼낼 때 쓰는 이형제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무봉제 신발에 들어가는 핫멜트 접착제와 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 섬유를 생산하며 지난해 18%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 초경량·무재봉 혁신 이끌며 성장

K신발 소재 기업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이다. 세계 신발 소재 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 전쟁터와 같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은 1~3개월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며 소재, 디자인

을 조금씩 바꾼다.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2~3년을 주기로 새로운 소재 업체를 발굴한다. 동진섬유는 나이키가 플라이니트 제품을 내놓은 2012년 기회를 잡았다. 플라이니트는 하나

의 실로 엮은 초경량 소재로 운동화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했다. 공기도 잘 통해 세계 기능성 운동화의 표준 소재가 됐다.

아셈스는 2005년 나이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며 핵심 협력사가 됐다. 나이키 신발의 기능성 인솔(깔창) 불량 문제를 해소할 제품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놓으며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나이키 등에 핫멜트 접착제를 공급하며 고속권 인력 없이도 고가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무재봉 공정의 핵심축으로 발돋움했다.

장 대표는 “무재봉 공정으로 신발 업체들은 재봉 비용을 최대 50% 줄였다”며 “소재 업체는 신발 회사의 수천 개 개발 프로젝트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혁신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트럼프 대통령, EU 관세 합의로 정치적 국면 전환 성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15% 관세율 합의를 이끌어내며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무역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기 침체 우려와 비판에 직면했던 트럼프 행정부에게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일본과의 협상에 이은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 내용
#가장 큰 규모의 무역협정: 뉴욕 타임스(NYT)는 이번 미국-EU 무역 협정이 지금까지 발표된 협정

중 가장 큰 규모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절실한 성과였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유리한 협상: 전문가들은 EU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 극복: 그동안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실업 증가 등 경제적부작용 우려와 내년 중간선거 참

패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으나, 이번 EU와의 합의로 이러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가능성이 커졌다.
#EU의 현실적 선택: EU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회피를 통한 수출 산업 보호(특히 독일 자동차 산업), EU 단일 시장 유지,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이 작용했다.
#향후 불확실성: 다만, 이번 합의가 포괄적인 성격이므로 세부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의 승리’라는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톱슨 목금형(톱슨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아식스 메타스피드 시리즈 공개, 세 가지 모델로 다양한 주법에 최적화된 퍼포먼스 제공



▲왼쪽부터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 메타스피드 레이 출처: 아식스(ASICS)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가 레이싱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최상급 레이싱화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 (METASPEED™ SKY TOKYO)’와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 (METASPEED™ EDGE TOKYO)’, 그리고 초경량 모델 ‘메타스피드 레이 (METASPEED™ RAY)’를 공개한다.

세 제품 모두 경량화와 퍼포먼스 향상을 극대화한 아식스의 첨단 스피드 기술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이번 시리즈는 아식스 스포츠공학연구소의 엄격한 과학적 연구와 세계 정상급 엘리트 선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됐다.

아식스는 러너마다 각기 다른 주법과 스타일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레이싱화가 러너가 가진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메타스피드 레이는 무게가 약 129g에 불과해, 현재 시장에 출시된 카본

플레이트 레이싱화 중 가장 가벼운 수준에 속한다. 뛰어난 반발력과 무중력에 가까운 착화감을 선호하는 포어풋(Forefoot) 착지 주법을 가진 러너에게 최적화되었으며, 빠른 템포에서 최상의 효율을 보여준다.

‘레이(Ray)’라는 이름은 ‘빛의 속도’를 뜻하는 영어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일본어로 숫자 ‘0’을 의미하는 ‘레이’에서 차용해 가벼운 무게감을 상징한다.

메타스피드 레이의 미드솔에는 아식스의 최신 혁신 소재인 FF LEAP™ 폼(FF 리프 폼)이 전면 적용됐다. 이는 아식스 역사상 가장 가볍고 부드러운 뛰어난 반발력을 자랑하는 폼으로, 러너가 강력하고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어퍼는 프랑스 Matryx®사의 경량 직조 소재로 제작되어, 빠른 주행 속도에서도 발을 안정적으로 감싸면서도 무게를 최소화한다.

미드솔 내부에는 소형 카본 플레이트가 탑재되어 착지 순간 추진력을 극대화한다. 또한 다이내믹 드롭 구조(Dynamic Drop Structure) 기술을 적용해, 착지 시 FF 리프 폼의 뛰어난 압축력으로 설계상 5mm 힐드롭보다 더 큰 낙

차를 만들어내 추진력을 극대화한다. 아웃솔에는 젖은 노면에서도 탁월한 접지력을 제공하는 아식스 그립(ASICS GRIP) 소재가 사용됐다.

함께 선보인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기존 시리즈의 대표 모델로서 한층 진화된 성능을 갖추고 돌아왔다. 두 모델은 러닝 스타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는 넓은 보폭으로 속도를 높이는 스트라이드 주법을 가진 러너에게, 메타스피드 엣지 도쿄는 보폭과 케이던스(걸음수)를 동시에 늘려 속도를 향상시키는 케이던스 주법을 가진 러너에게 최적화됐다.

두 제품 모두 미드솔에 FF 리프 폼과 FF 터보 플러스(FF TURBO™ PLUS) 폼을 조합해, 메타스피드 시리즈 역사상 가장 부드럽고 탄력적인 주행감을 제공한다.

동시에 장거리 레이스에도 안정적인 지지력을 갖춰 러너가 자신 있게 최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퍼에는 통기성과 경량성이 강화된 모션 랩 3.0(MOTION WRAP 3.0)이 적용돼 가볍고 견고하게 발을 감싸준다.

이번 메타스피드 시리즈는 아식스가 2021년 처음 선보인 메타스피드 스카이 (METASPEED™ SKY)와 엣지(EDGE)의 철학을 계승하며, ‘모든 러너가 같은 방식으로 달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반영한 혁신적인 설계를 지속한다.

출시 이후 전 세계 러너들의 기록 경신을 도우며, 아식스는 엘리트 러닝화 시장에서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신제품을 통해 모든 러너는 자신만의 주법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선택해 향상된 속도와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식스는 오는 9월 도쿄에서 열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도쿄 25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이번 메타스피드 시리즈가 많은 선수들의 신기록 달성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벨기에를 대표하는 아식스 엘리트 마라토너 바시르 압디(Bashir Abdi)는 “이번 메타스피드 컬렉션은 아식스 팀

이 저를 포함한 여러 엘리트 선수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개발한 결과”라며, “세 가지 모델 중 내 주법과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다.

아식스 메타스피드 시리즈 개발 총괄자는 “각기 다른 러닝 스타일과 선호도에 맞춰 혁신적으로 설계된 이번 컬렉션을 통해 모든 러너가 자신만의 속도를 발견하고,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메타스피드 스카이 도쿄와 엣지 도쿄는 7월 25일, 메타스피드 레이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출처 : 바끄로뉴스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나이키 자 3 ‘화이트/코코넛 밀크’ 공개 측면을 가로지르는 스우시.

나이키가 자 모란트의 세 번째 시그니처 모델 자 3 ‘화이트/코코넛 밀크’를 공개했다. 이번 스니커는 단정한 색 구성과 날카로운 디테일이 공존하는 모델로, 퍼포먼스를 위한 기능성과 세련된 감성을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이다. 스니커의 어퍼는 순백의 니트 소재 위에 자 모란트의 이니셜을 형상화한 듯한 톱니형 텍스처가 더해져 단조롭지 않은 입체감으로 연출됐으며, 측면에는 광택감 있는 블랙 스우시가 가로지르는 형태로 배치돼 강한 대비를 이뤘다. 이어 힐컵에는 그의 시그니처 문구인 ‘TWELVE’가 그린 컬러 자수로 새겨졌으며, 텅에는 실버 톤 로고가 정교하게 각인됐다. 끝으로, 미드솔에는 크리미한 코코넛 밀크 컬러가 적용됐으며, 아웃솔



좌측과 우측에는 자 모란트의 등번호 ‘12’를 상징하는 숫자 ‘1’과 ‘2’가 각각 더해졌다. 나이키 자 3 ‘화이트/코코넛 밀크’는 오는 10월 18일, 나이키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혁신적 탄소배출량 및 전기료 절감 실현

베트남 2공장의 현지 경험으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확실하게 책임집니다!

주요생산품목

- 급유식 공기압축기 (Oil-Type)**
 -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인버터형 스크류 공기압축기 - 7.5 ~ 330kW (10 ~ 450HP)
 - 2단압축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 ~ 250kW (50 ~ 350HP)
- 무급유식 공기압축기 (Oil-free)**
 -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2.2 ~ 40kW (3 ~ 6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스크류 공기압축기 - 37kW ~ 450kW (50 ~ 600HP)
 - 인버터형 오일프리 저압 공기압축기 - Blower (0.4 ~ 1.5bar) - Low Pressure Compressor (1.5 ~ 3.5bar)

진공펌프 (Vacuum Pump)

- 스크류 진공펌프

압축공기 제습장치

-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 라인쿨러
- 에어필터

PT. COMPKOREA TEHNIK INDAH

Ruko Karawaci Office Park, Pinang Utara, Panunggan Barat Cibodas Tangerang, Ruko H-25 | Lippo Cikarang지점 | 한국본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약수터길 127-14 (가재리 396-6)
 김태봉 법인장 : +62-811-932-689 E-mail : kimtb160@gmail.com / ptcompkorea@gmail.com | 홍창선 이사 : 082113702540 | M. +82-10-2504-6443 E-mail : jr@compkorea.com

신발끈 묶을 필요없다... 아디다스골프, 스탠스미스 보아 골프화 출시



▲아디다스골프 제품

아디다스골프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을 한층 강화한 '스탠스미스 보아 골프'를 지난 18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스탠스미스 골프 모델 중 최초로 BOA, 핏 시스템을 탑재해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골퍼들을 겨냥했다. 지난 2021년 클래식한 라이프스타일 골프화로 첫선을 보인 레이스 버전의 '스탠스미스 골프'에 이어, 이번 BOA 버전은 기존의 상징적인 포인트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클로저 타입을 적용해 한층 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스파이크리스 러버 아웃솔과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한 쿠셔닝을 통해 탁월한 보행성과 접지력을 제공하며, 방수 처리된 오염에 강한 합성가죽 소재로 실용성을 더했다.

특히 BOA, 핏 시스템을 통해 발 전체를 정밀하고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 쉽고 빠른 착용은 물론 안정적인 핏을 선사한다.

디자인 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했다. 히든 타입의 BOA, 다이얼은 헌팅캡을 쓴 스탠스미스 일러스트가 새겨진 천연가죽 킷으로 덮여 있어, 간결하면서도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골퍼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아디다스골프는 이번 '스탠스미스 보아 골프'를 통해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중시하는 현대 골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하고자 한다.

스탠스미스 보아 골프는 아디다스골프 청담 직영점, 백화점 그리고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디지털 타임스]

합변의 법률상식

인도네시아 내 기업 분쟁 사례와 예방 전략

PT PMA(외국인 투자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분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해석 차이부터, 지분 분쟁, 해고 소송, 또는 인허가 관련 문제까지 포괄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발생한 기업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예방 전략을 분석합니다.

1. 실제 사례로 보는 주요 분쟁 유형

① 지분 구조 및 경영권 분쟁
- 한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파트너와 50:50으로 PT PMA를 설립했지만, 정관의 경영권 분배 규정이 모호하여 경영 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한 사례.
- 예방 전략: 정관에 의결권 분배, 이사회 구성 방식,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결의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② 계약 해석 및 해지 조건 분쟁
- 현지 공급업체와의 장기 계약에서 해지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급 중단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한 사례.
- 예방 전략: 계약서 작성 시 해지 사유, 위약금,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함.

③ 고용 관련 분쟁
- 현지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으로 노동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 사례. 근로계약서 미비와 정당한 해고 사유 부족이 원인.
- 예방 전략: 고용계약 체계 정비, 해고 전 경고장 및 사유 통지 절차 준수 필수.

2. 사전적 리스크 관리 전략

①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 검토
- 표준 계약서 사용보다 개별 사안 맞춤형 조항 삽입 권장
- 특히 JV 계약, 공급계약, 부동산 계약 등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규 반영 필수

② 분쟁 해결 조항 명시
- 중재 조항 삽입: 인도네시아 국립중재원(BANI) 또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활용 가능

- 관할권 및 준거법 사전 합의: "인도네시아 민사법에 따름" 과 같이 명시해야 함
③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
- 계약관리 전담 인력 지정
- 분기별 계약 갱신 및 리스크 보고 시스템 도입

3.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① 조기 조정 시도
- 공식 통지 전에 비공식 회의 통한 원만한 해결 시도
- 서면 합의 형태로 정리, 추후 소송 리스크 예방

② 법적 대응
-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크므로 중재 절차를 우선 고려
- 노동 분쟁은 특별 법원에서 별도 진행되며, 관련 대응 전략 차별화 필요

③ 기록화 및 증거 수집
- 이메일, 회의록, 계약서 수정본 등 증거 확보
-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서화 유지

④ 대응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이슈입
인도네시아에서의 기업 분쟁은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신뢰, 문화적 이해, 행정 대응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이슈입



변호사 함상욱

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 시에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과 내부 리스크 관리 는 PT PMA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I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KEMEN-KUM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bakchan@daum.net



툼 삭스 x 나이키, '마스야드 3.0' 공식 이미지 공개, 새로워진 디테일.



툼 삭스와 나이키 협업 스키커 '마스야드 3.0'의 공식 이미지가 마침내 공개됐다. 나이키는 지난 2월 3세대 모델의 기술 사양을 공개하고, 5월에는 실물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공식 이미지와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시가 진행된다. 이번에 선보인 프로그램은 I.S.R.U.(In-Situ Resource Utilization) 앱이다. 앱 내 주간 챌린지를 통해 포인트를

쌓고 리더보드 순위를 올리는 방식이며, 순위권에 오른 참여자에게는 오는 9월 5일 툼 삭스 웹스토어를 통해 마스야드 3.0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가격은 약 275달러(한화 약 38만 2,717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툼 삭스는 "마스야드는 늘 구하기 어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원한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챌린지가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발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삶이 분명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스야드 3.0'은 기능성을 강화한 여러 요소를 갖췄다. TPU 힐 클립을 적용해 추가 지지력을 제공하고, 카본파이버 플레이트로 안정성을 높였다. 나이키 리액트 폼을 사용해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그니처인 메쉬와 스웨이드 소재 어퍼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블랙 러버 포싱으로 앞코 내구성을 보강했으며, 레드 레이스 키퍼를 적용해 핏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툼 삭스 x 나이키 마스야드 3.0'은 2025년 9월, 일부 나이키 리테일러와 글로벌 나이키 웹 사이트를 통해 출시되며, 가격은 275달러(한화 약 38만 7,887원)이다. HYPEBEAST

뉴발란스 2000 ABZORB 새로운 컬러웨이 공개 레트로 퓨처리즘 감성 끝판왕.

뉴발란스의 새로운 러닝화 모델 2000 ABZORB의 또 다른 컬러웨이가 공개됐다. 지난 2월, 상과올루 기반 스타일리스트 구스타보 소아레스가 베이비 블루 컬러의 실루엣을 최초 공개한 데 이어 등장한 이번 모델은, 레트로 퓨처리즘 감성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뉴발란스는 올해 하반기 '2000' 모델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신작은 2000년대 초 러닝 슈즈 디자인과 현대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통기성이 좋은 메쉬 어퍼에 합성 오버레이를 덧대어 슬림한 실루엣을 완성했으며, 그레이



▲Dane3tune/Red Note

그라데이션 톤을 중심으로 연한 블루 컬러가 포인트를 이룬다. 실버 컬러의 아일렛, 오버레이, 풀 렉스 ABZORB 쿠셔닝 시스템 등 디테일은 미래적인 느낌을 강조하며, 인솔과 'N' 로고 역시 그레이 톤으로 통일됐다. 뉴발란스 2000 ABZORB의 정식 발매일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HYPEBEST]

아디다스, 3D 프린팅 러닝화 '클라이마쿨' 레이스 버전 선보



▲아디다스 3D 프린팅 러닝화 '클라이마쿨' [사진: 아디다스]

아디다스가 3D 프린팅 러닝화 '클라이마쿨'의 새로운 레이스 버전을 공개했다. 이전 모델과 달리 끈을 조여 맞춤형 핏을 제공하며, 검정색 텅과 레이스가 추가돼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였다. 클라이마쿨 레이스드는 160달러에 판매되며, 아디다스 공식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아디다스가 3D 프린팅 러닝화 '클라이마쿨' (Climacool)의 새로운

레이스 버전을 출시했다. 15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클라이마쿨은 투과성이 높은 격자 구조로 제작돼 통기성과 건조 속도가 뛰어나며, 블랙 텅과 레이스가 추가돼 보다 스포티한 스타일을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슬림 스타일과 달리 끈을 활용해 개인의 발 모양에 맞춰 핏을 조절할 수 있어 착용감이 더욱 개선됐

다. 클라이마쿨은 지난해 9월 소량 출시됐으나, 올해 4월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되며 미국 일부 아디다스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레이스드 모델은 기존 슬립온보다 20달러 비싼 160달러에 책정됐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일부 매장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아디다스 킥 펀드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된다.

아디다스에 따르면 신발의 주요 구조는 3D 프린팅 공정을 통해 단일 조각으로 제작되며, 이는 24시간 동안 회전, 굽힘, 압축 과정을 거쳐 고급 폴리머를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스드 모델은 기존 슬립온과 달리 3D 프린팅된 아일릿을 포함하며, 텅과 레이스는 이후 추가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기계
 TEL: +82-2-465-6308/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뉴발란스 2000 '로즈 슈거' 공개 풍선껌같은 비주얼.



뉴발란스가 2000년대 감성을 담은 뉴발란스 2000 '로즈 슈거' 를 공개했다. 이번 스니커는 Y2K 무드를 반영한 컬러 팔레트와 미래적인 디테일이 결합돼 독특한 비주얼로 선보여진 점이 특징이다. 스니커의 어퍼는 그라데이션이 감도는 '로즈 슈거' 컬

러의 메시 소재로 감싸졌으며, 그 위로 동일한 계열의 핑크 톤 합성 오버레이가 부드럽게 덧대졌다. 이어 측면에는 뉴발란스 시그니처 'N' 로고가 자리 잡았으며, 미드솔에는 반짝이는 글리터 디테일이 더해진 앰블브 쿠셔닝이 탑재돼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았다.

뉴발란스 2000 '로즈 슈거' 는 오는 2025년 가을 중 뉴발란스 공식 웹사이트에서 출시되며, 가격은 170달러, 한화 약 23만 원이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정겨운 우리말

덜깨기 : 늙은 수평

덜렁스럽다 : 성미가 찬찬하고 차분하지 않은 데가 있다.

덜름하다 : 입은 옷이 몸에 비해 길이가 짧다.

예)아내가 입은 옷이 덜름하여 동생 옷 입고 나온 것 같다.

덜 :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

예)사과를 여섯 개 샀더니 덜므로 하나를 더 얻었다.

※에누리는 실제보다 더 보태거나 줄인다는 뜻으로 덜과는 달라요.

덜거리 : 못난 사람을 이르는 말(예전에 새우젓 장수가 알통과 덜통(덜므로 막치 젓국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통)을 갖고 다니면서 덜므로 줄 때는 질이 낮은 덜통에서 내어 주었다는 말



에서 유래)

덜거칠다 : 우울하고 답답하다.(고려가요 <쌍화점>에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 자리 같이 덜거츨니 없다.”

덜터기 :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화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6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6년(丙午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CREATIVE DESIGN COMPANY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SILK ROAD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3002 9090 / 91
pt.kwangaeto@gmail.com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10권부터 가능

대한민국 노통연관보일러 No.1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보다높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실현, 노통보일러의 폭넓은 스테이지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DMXN-Series

- 고성능 저녹스버너 탑재
- Siemens Control 채용
- 2-Damper 전자식 컨트롤로 Air, Gas의 정밀제어를 통한 최적의 연비실현

친환경	증기건도	보일러효율	연소제어
NOx 40ppm 이하	98%이상	99%이상	비례제어



DMI-Series

- 컴팩트형 미니 노통보일러
- 협소한 공간에 최적의 보일러
- 모든 부대장비가 하나의 플랫폼상에 설치, 배선, 배관이 되어있어 현장 운반 설치가 용이

컴팩트한 설계	증기건도	보일러효율	연소제어
폭 1,960-2,730mm	98%이상	90%이상	스텝제어

산업용 보일러 위력 54년!
(주) 대열보일러
DAEYEO BOILER CO., LTD.
INDONESIA AGENCY

영업 담당 : 이광선 이사
Tel. +62-021-598-0222 / +62-0812-100-77732
E-mail. salesyja@gmail.com / sunny@yusungjaya.com

본사-제조공장(서산 소재)



www.dylboiler.co.kr

“교육자 자긍심 되새김”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19일 폐막

46개국 교사들, AI 기반 수업 설계·다문화 교육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큰 호응
이상덕 동포청장 “한글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을 기다려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되새겼다”는 소감이 한목소리로 모인 ‘2025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가 7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주최한 이번 연수에는 46개국 234명의 한글학교 교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올해 처음 실시한 ‘AI 활용 한국어 교수법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상덕 청장이 참석한 이날 수료식은 일주일간의 연수 장면을 모은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지역별 대표 소감 발표, ‘나에게 한글학교란’ 엽서 쓰기 이벤트 우수상 및 행운상 등 다양한 시상식과 수료

증 수여, 단체 및 ‘인생네컷’ 사진 찍기 등으로 진행됐다.

마다카스카르 한글학교 김준환 교사는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새기고, 세계 각지에서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권영남 교사는 “연수를 개최한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모국과의 정과 유대를 깊이 체감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AI 기반 수업 설계와 다문화 교육 현장 체험은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엽서 쓰기 이벤트에서는 레딩 한글



학교 정경선 교장이 ‘나에게 한글학교는 마을의 공동텃밭이다. 학부모, 선생님, 지역 한인이 함께 재외동포 차세대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터’라는 글을 남겨 우수상을 받았다.

이상덕 청장은 수료식에서 “한글학교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역사 정체성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어린

학생들이 일주일을 기다려서 가고 싶어 하는 즐거운 주말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일 내린 빗속에서도 모두 건강히 일정을 마치셔서 기쁘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재외동포청은 연수 기간에 각 지역 담당자와 교사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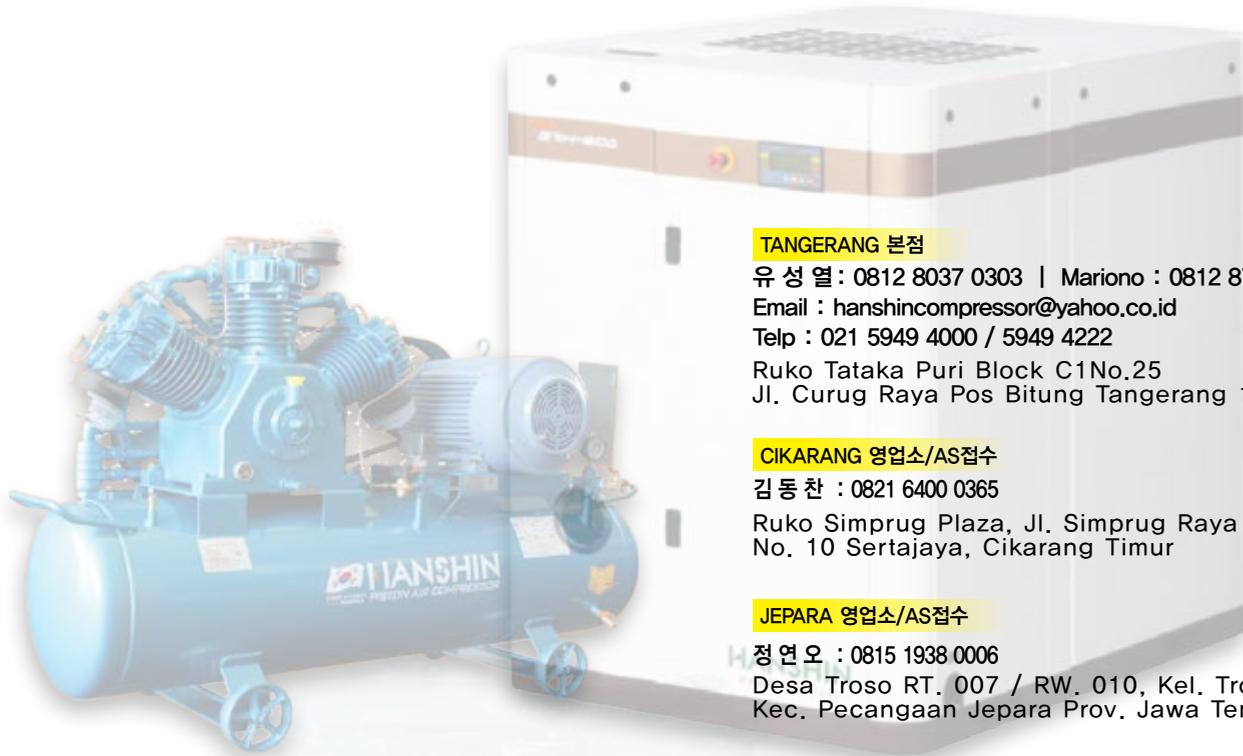
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앞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초청연수 개회식에는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축사를 보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선생님들의 열정은 우리말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빛”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올해 연수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글 교육’ 특강을 비롯해 수준별 한국어 말하기·쓰기 교수법 워크숍, 선생님들의 마음 치료를 위한 강연, 수업을 살리는 놀이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 관람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